

시민이 그린 '40년 후 익산'

익산시민원탁회의 개최 이리역 폭발 40주기 추모 아픈 과거 딛고 미래로

익산시(시장 정현을)가 이리역 폭발사고 40주기 추모행사의 일환으로 18일 오후 그랜드펠릭스 호텔에서 '시민이 생각하는 40년 후 미래 익산'이라는 주제로 익산 시민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9월 2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익산시 및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를 신청한 직장인, 주부, 청년과 지역리더 및 퍼실리테이터(토론진행자) 등 시민 120여명이 참석하여 미래 40년 후 익산을 그려

보는 담론의 장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행사장 직접 참여자 중심으로 테이블별 토론과 발표가 이어졌으며, 이와 별도로 행사에 직접 참여가 어려운 인터넷 참여자가 제안한 미래 익산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민원탁회의와 온라인 시민 참여자가 제안한 주요 키워드는 유네스코 백제역사, 식품수도 국가식품클러스터, 문화예술과 교통중심, 청정 자연자원 등으로 이들을 잠재력으로 활용한 미래 성장사업이 익산발전의 동력이 되기를 기대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리역 폭발사고 후 지난 40년간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를 계기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 40년은 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중요한 시간이기때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을 부탁드린다"며 "시민원탁회의는 시민이 정책을 제안하는 시민권 강화의 계기이자 시민 아이디어 제안 창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원탁회의와 인터넷을 통해 제시된 미래정책 아젠다는 오는 26일 개최되는 전문가 포럼에서 더욱 숙성시키게 될 것"이라며 "제안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은 익산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시는 11월 11일 익산역 광장에서 '이리역 폭발사고 40주년 추모행사' 개최를 통해 유가족과 시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추모의식과 함께 미래 익산의 40년 후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시 한준수 부시장이 18일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설득과 지원요청 활동을 벌였다.

군산시 내년도 살림늘리기 사활걸다

한준수 부시장, 국회방문 정치권 협조 요청

군산시 한준수 부시장이 18일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설득과 지원요청 활동을 벌였다.

2018년 군산시 국가예산은 당초 부처 반영액이 8,554억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310억원이 증액되어 최종적으로 8,864억원의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이번 군산시의 국회 방문은 오는 31일까지 계획되어 있는 국정감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인 정부예산에 대해 심사 전 군산

시 주요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정치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번 방문에서 한준수 부시장은 김관영 의원과 군산시 국가예산 전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후 국회단체의 대응전략을 함께 논의했으며, 주요사업별로 필요성 등 논리강화와 삭감 우려사업에 대한 대책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호영 의원과 만나 남북2축도로 등 새만금 관련 사업과 과소반영 사업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으며, 특히 근대형민역

사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5억원의 예산반영을 요청했다.

한준수 부시장은 "국회 예산 심의만을 남기고 있는 만큼 정치권과 다양한 협력체계 및 공조를 통해 미반영예산 추가편성 및 과소 반영된 예산 증액 등 더 많은 국비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김관영 의원과 함께 적극적인 국비확보 활동으로 오랫동안 담보 상태였던 신시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3년 연속 1조원의 예산 달성을 위해 확정시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군산=김관근 기자

어두운 밤거리 밝히는 '치안 파수꾼' 든든

군산시 수송자율방범대 축축한 순찰활동 호평



군산시 수송동 자율방범대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매일 저녁 휴식을 반납하고 치안 취약지를 순찰하고 있다.

군산시 수송동 자율방범대(대장 채규택)가 매일 저녁 수송동민들의 생활안전을 든든히 지키고 있어 시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수송동 자율방범대는 지난 1999년 조직되어 흥남동·삼학동·수송동에서 18년 동안 방범활동을 이어왔으며 현재 21명의 대원들이 하나 되어 주민들을 내 가족같이 지키는 야간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방범대원들은 자영업, 직장인 등 다양한 직업으로 낮 동안 바쁜 일상을 보낸 후 야간에 휴식을 반납하고 3~4명 1개조를 구성해 치안 취약지를 순찰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며, 홀로 귀가하는 주민들이 많은 원룸지역은 구간별로 나눠 도보순찰을 실시해 시민들의 안전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학교 주변, 24개소 소공민 및 어린이공원 등 범죄에 취약한 지역

에 대해서는 특별히 꼼꼼한 순찰을 실시해 어린이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대표적인 봉사단체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채규택 수송자율방범대장은 "앞으로도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순찰활동을 실천하여 시민들이 믿고 사랑하는 지역사회 치안 파수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

정종신 수송동장은 "안전한 지역 사회를 위해 생애에 종사하면서도 시간을 내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자율방범대가 있어 살기 좋은 지역 사회가 될 수 있었다"며 "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왕성한 방범활동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군산=김관근 기자

도시재생 뉴딜사업 초석다지기 돌입

군산시-신영시장 상인회 협약

군산시는 신영시장 상인회(회장 윤봉화)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초석을 다지고 원도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8일 군산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단장인 한준수 부시장과 신영시장 상인회 윤봉화 회장은 군산의 성공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지원과 연계된 특색화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추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목표로 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산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동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도시재생 선도지역' 내로 유입된 많은 관광객을 전통시장이 밀집된 신영시장 인근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 사업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민할 계획이다.

/군산=김관근 기자

익산시 한일교류 활발... 日 분고오노시 시장 초청

익산시 우호도시인 일본 분고오노시 카와노 후미토시 시장 일행이 18일 1박 2일 일정으로 익산을 방문했다.

분고오노시 방문단은 18일 시청을 방문해 정현을 익산시장과 만나고 우호도시 간 우의증진과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미특사지, 왕궁리유적전시관, 보석박물관 등을 둘러보며 백제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가을을 맞은 익산의 정취를 즐겼다.

19일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식품클러스터 조성 현황을 청취하고 일정을 마무리 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난 10여년의 교류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더 활발히 해나가자"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장에 원대병원 강성돈 교수 취임



원광대학교병원 (병원장 최두영) 신경외과 강성돈 교수(사진)가 최근 서울 더 케이 호텔에서 개최된 제57차 대한신경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대한신경외과학회는 1961년 설립되어 현재 3,078명의 정회원이 가입해 있으며 신경외과 발전을 위한 노력과 신경외과 전문의 양성 및 국제적 학문 교류를 통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강성돈 교수는 전남대학교 의대 졸업하고 미국 버지니아대학 뇌혈관 연구소를 거쳐 원광대학교병원 신경외과장과 진료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강 신임 회장은 "다양한 연구 활동과 학회의 이념을 충실히 이행 할 뿐만 아니라 학회의 권익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